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경험:

한 체육교사의 5년 동안 학교스포츠클럽 자문화기술지

지도교수 박형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고 승 필

2019年 2月

<국문초록>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경험:

한 체육교사의 5년 동안 학교스포츠클럽 자문화기술지

고 승 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지도교수 박 형 란

2012년 나라 전체가 학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학교폭력문제는 곧 인성교육의 중요성으로 전환되었고,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정책으로 다양하게 실천되었다. 2012년 7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전면 시행하였다. 갑작스런 시행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학교 현장에서는 1년 단위로 업무 분장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자로서 운영했던 5년 동안(2014~2018)의 경험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분석하고 성찰하여,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5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5년간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의 기억자료 및 자기 성찰, 문서자료 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에는 장소, 상황, 시간 자료출처를 표

기하여 색인화 하였다. 또한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 측정법,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간 검토, 반성적 주관성을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높였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변화로 첫 번째로, 3학년 체육 시간 시수 증가로 첫 발을 내딛었고, 과감하게 학년구성을 반으로 나눠 시스템을 조정하였다. 최선을 다해 종목을 선정하고, 활동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하였으며, 체육시간과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였다. 그럼에도 겹치는 경우 무조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우선 배정하였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인적요소 변화로 강사 선생님을 최우선 선정하였다. 공정하게 강사를 선발하였고, 성별 스포츠강사 선생님과 교사 자격증 여부 비교를 통해 강사선생님들의 역량을 확인하였다. 강사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생 평가권을 주도록 환경을 구성하였고, 무엇보다 강사선생님과 교사와의 레포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점을 두었다.

체육교사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결정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매년 똑같이 해 오던 방식으로 진행하고,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틀림없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정상화 될 수 없다. 스포츠강사들과 체육교사는 결국 한배를 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교사가 감당하고 배려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지금 당장 체육교사로서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의 처우를 논하기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정상화 되고, 많은 교육적 효과를 보여준다면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의 정규직화도 분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학교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지역 학교, 학교 규모가 다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식적인 평가 근거를 만들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또한 엄연한 중요한 수업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국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 1 |
| 2. 연구의 목적 | 3 |
| 3. 연구의 문제 | 4 |
| 4. 연구의 제한점 | 4 |
| 5. 용어의 정의 | 4 |
| II. 이론적 배경 | 6 |
| 1.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이해와 난제 | 6 |
| 1) 학교스포츠클럽 | 6 |
| 2)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 7 |
| 3) 학교스포츠클럽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비교 | 8 |
| 4)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난제 | 11 |
| 5)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선행연구 | 13 |
| 2. 자문화기술지의 이해 | 14 |
| 1) 자문화기술지 개념 | 14 |
| 2) 자문화기술지 유형 | 15 |
| 3) 자문화기술지 글쓰기와 한계 | 16 |
| 4) 체육학에서 자문화기술지 | 17 |
| III. 연구방법 | 19 |
| 1. 연구자 | 19 |
| 2. 연구 장소 | 25 |
| 3. 자료 수집 | 28 |
| 4. 자료 분석 | 29 |
| 5. 자료의 진실성 | 30 |

| | |
|-------------------------------------|-----------|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32 |
| 1.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변화 | 32 |
| 1) 3학년 체육 시간 시수 증가로 첫 발 내딛기 | 32 |
| 2) 과감하게 학년구성을 반으로 나눠 시스템 조정하기 | 36 |
| 3)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종목 선정하기 | 39 |
| 4) 활동장소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 41 |
| (1) 매해마다 활동 장소 정하기는 큰 스트레스 | 41 |
| (2) 체육시간과 겹치면 내가 양보하기 | 44 |
| 2.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인적요소 변화 | 45 |
| 1)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정상화의 꽃은 강사선생님 | 45 |
| (1) 강사 선발 | 45 |
| (2) 여자 스포츠강사와 남자 스포츠강사 | 47 |
| (3) 교사 자격증 | 47 |
| (4) 2018년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선생님 | 50 |
| 2) 학생 평가권으로 강사선생님을 추천계 하기 | 53 |
| 3) 내가 인정하면 너도 인정해주는 스포츠강사 전문성 인정하기 | 56 |
| (1) 학생보다 못한 선생님 | 56 |
| (2)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들과 레포 형성하기 | 57 |
| V. 결론 및 제언 | 59 |
| 1. 결론 | 59 |
| 2. 제언 | 62 |
| 참고 문헌 | 64 |
| ABSTRACT | 68 |

표목차

| | |
|------------------------------------------|----|
| 표 1. 학교 체육 활동의 3대 영역 | 7 |
| 표 2. 중학교 체육수업 운영예시 | 8 |
| 표 3. 학교스포츠클럽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비교 | 10 |
| 표 4.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정책 제언 | 12 |
| 표 5.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문제점 과 해결방안 | 12 |
| 표 6. 자문화기술지와 기타 질적 연구 분야 비교 | 15 |
| 표 7. Reed-Danahay(1997) 자문화기술지의 유형 | 16 |
| 표 8. 2018학년도 S여중 학생 | 26 |
| 표 9. 2018학년도 S여중 교과별 교사 현황 | 26 |
| 표 10. 교육과정 년도 별 시수 조정표 | 33 |
| 표 11. 년도 별 스포츠클럽 반 학년 구성 조정 | 36 |
| 표 12.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지원비 | 38 |
| 표 13. 년도 별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종목 조정 | 39 |
| 표 14. 년도 별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장소 현황 | 43 |
| 표 15. 년도 별 종목 및 강사 | 45 |
| 표 16. 년도 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성별 현황 | 47 |
| 표 17. 년도 별 교사 자격증 현황 | 48 |
| 표 18. 중학교 스포츠강사 서류 심사표 | 50 |
| 표 19. 2018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평가 계획서 | 55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2018학년도 s 여자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환경 | 28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2년 나라 전체가 학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TV와 신문, 인터넷 기사는 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뤘고, 학교는 학교폭력의 온상으로 그려졌다. 정부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폭력문제는 곧 인성교육의 중요성으로 전환되었고,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정책으로 다양하게 실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2년 7월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하면서 기존의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운영되고 있던 학교스포츠클럽을 추가적으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다(오대균, 2014).

2012년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학교에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전면 시행하였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 이었다. 담당체육교사와 일반교사들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취지와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반별로 스포츠클럽을 체육시간처럼 운영하였다. 도교육청에서는 연말 교무부장과 체육담당자를 도교육청으로 출장을 오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정책 담당자가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전달 연수를 하였다. 그리고 학기 초 공문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은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은 그동안 다양한 개념 및 명칭으로 혼용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도 그 개념 및 명칭에 대한 혼란이 남아 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201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재개념화를 통한 용어 재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까지도 학교스포츠클럽 이라는 용어로 학교스포츠클럽 방과 후 동아리와 교육과

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첫째, 정규 교육과정 내 창의적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다. 셋째, 교내 활동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반면, 학교스포츠클럽은 첫째,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방과 후 시간 또는 주말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둘째,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한다. 셋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교내 활동과 학교 대항 리그 경기를 포함한다(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 2012). 즉,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양한 종목 중 한 종목을 학생 스스로 선택해서, 스포츠강사 선생님과 일년 동안 수업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현장에서는 기존의 1, 2, 3학년 주당 3·3·2시간의 체육수업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1·1·2시간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시간으로 배정하여 주당 4시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의 갑자기 증대된 체육활동 시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자 일반교과 교사 중 종목별 지도가 가능한 교사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하거나 체육교사 또는 체육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위학교의 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만 얻으면 스포츠강사로 활동하게 자격기준을 확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러한 양적 증가는 다양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 강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능력의 한계, 원활한 수업 진행을 이끌지 못하는 지식의 부족보다도 ‘아나공’ 형식의 수업이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임영택, 이만희, 2014). 또한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체육교사 보다 스포츠 강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스포츠 강사 스스로 위축이 되어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모른 척 외면을 하거나 묵언을 해버린다는 것이

다(오재광, 2016). 스포츠강사 입장에서도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다. 가령, 체육수업과 겹치는 경우 정확한 수업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체육 용구 부족, 자기가 희망하지 않은 동아리인 경우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으며, 체육교사와의 관계 또한 부정적인 경우 계약 기간을 마치기가 어렵다.

그동안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 조사 및 체육교사와의 인식을 다룬 연구(박재혁, 2013; 최나영, 2014; 한동표, 2013), 학교스포츠클럽 모범 사례 연구(김민옥, 2014) 등으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대부분 학교현장에서는 1년 단위로 업무분장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담당자로 고민하고 연구하기가 힘든 환경이고,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주제로 자문화기술지를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자로서 건강교육부장(=체육부장)으로 운영했던 5년 동안의 경험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분석하고 성찰하여,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5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담당자로서 운영했던 5년 동안의 경험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하는데 있다. 또한, 실천적 지식을 통해 얻어진 연구를 현장 체육교사들에게 제공하여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담당자로서 운영했던 5년 동안의 경험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S 여자중학교에 국한하여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여자중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남자학교와 남녀공학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5. 용어의 정의

1)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육/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즉 방과 후 자율 활동, 방과 후 과외체육활동, 체육동아리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리고 개인의 성, 인종, 경제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스포츠 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활동이며, 동일 학교 학생(대한체육회 등록 선수 제외)으로 구성하고 교육청에 등록하여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영되는 체계화된 조직이다(허현미, 김선희, 2008).

2)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란 2011년 10월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정책의 하나로, 학교 폭력의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입된 스포츠 활동 시간이다.

3)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자문화기술지는 기존의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탐구, 생애사 연구와는 달리 자전적(Autobiographical)으로 주관성이 가미된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구성하고,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며, 문화기술지적(Ethnographical)방법이 차용되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2010).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담당자로서 5년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모색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난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5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교육적 의미를 모색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인 문화기술지를 적용하여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이해와 난제

1)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 체육 영역 안에서 주로 과외 체육 활동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클럽 형태의 과외 체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추가됨으로써 학교스포츠클럽이 정과 체육 활동에도 포함되는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체육 활동의 3대 영역과 그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의 관계는 <표 1>과 같다(교육부, 2013).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자발성을 전제로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서 전환을 도모하고, 일반 학생들의 건강 체력의 향상과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었다.

학교스포츠클럽 외에도 기존의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스포츠 활동에는 학교 운동부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먼저 학교 운동부는 경기력을 향상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 소수의 학생들을 전문체육 특기자로 성

장시키는 활동이다. 이처럼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운동부와는 달리 학교스포츠클럽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체육인으로서의 성장과는 상관없이 다수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은 비만해소 및 체력증진, 정신건강의 함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 1. 학교 체육 활동의 3대 영역

| 구분 | 대상 | 명칭 | 개념 |
|-----------|--------------|----------------|------------------------------------------|
| 정규 체육 | 일반학생 학생선수 | 체육 수업 | 정규 수업으로서의 교과 |
| |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영역 |
| 과외 체육 | 일반 학생 | 학교스포츠클럽 | 자발적 참여하는 문화로서의 스포츠 활동 |
| | | 방과 후 체육 활동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 |
| | | 토요 스포츠 데이 | 건강한 여가 생활 및 체력 향상을 위해 토요일에 제공되는 스포츠 프로그램 |
| | | 틈새 체육 활동 |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비정기적인 교내 체육 활동 |
| 엘리트 체육 | 학생 선수 | 학교 운동부 |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된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활동 |

2)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2011년 10월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정책의 하나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입된 스포츠 활동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라고 한다.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목은 체육, 국어, 영어, 수학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이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에 의해 2012년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을 말한다. 중학교만 적용되며 국어, 영어, 수학, 체육 등 일반교과목처

클럽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방과 후나 토요일에 하는 것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은 모두 중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정규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을 의미한다(남기홍, 2017).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중학교 과정 중 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해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확보할 수 있다. 여건이 어려울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포함하여 변경되는 중학교 체육수업 운영 예시는 <표 2>와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표 2. 중학교 체육수업 운영 예시

| 구분 | 현행 | | | | → | 개정(안) | | | |
|-------------|----|---|---|---|---|-------|---|----|---|
| | 1 | 2 | 3 | 계 | | 1 | 2 | 3 | 계 |
| 체육교과 | 3 | 3 | 2 | 8 | 3 | 3 | 2 | 8 | |
| 학교스포츠 클럽 | - | - | - | - | 1 | 1 | 2 | 4 | |
| 체육수업 계 | 3 | 3 | 2 | 8 | 4 | 4 | 4 | 12 | |

3) 학교스포츠클럽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비교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로 두 가지 다른 활동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 역시 혼돈을 줄이기 위한 용어이지 정확하게 재 개념화 한 용어는 아니다. 기존 학교스포츠클럽은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 운동부 문화 개선을 위한 배경에서 시작했다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2012년 2월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폭력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자 도입되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육/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동아리 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대교활동적인 성격이라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매 학기 편성하여 학년별 연간 34시간(3학년 68시간) 3년간 총 136시간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은 2005년부터 연구 개발하여 2007년부터 시작하였고,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2012년 9월부터 17개 시·도 중학교에서만 전면 시행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은 방과 후 활동 또는 주말에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여 교내리그 또는 학교 간 대교경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시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 활동이며, 교내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학교스포츠클럽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비교

| | 학교 스포츠클럽 |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
|---------------|------------------------------------------------------------------------------------------------------------------------------------------------------------------------------------------------------------------------------------------------------------------------------------------------------------------------------------------------------------------|------------------------------------------------------------------------------------------------------------------------------------------------------------------------------------------------------------------------------------------------------------------------|
| 추진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부족 해결 - 방과 후 활동 활성화 - 학교 체육 교육 환경 변화 · 학교 운동부 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권 보장 - 교육적 문화 조성 - 미래지향적 체제 (허영미, 김선희, 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2월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활동의 활성화 정책 · 학교 폭력의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입 |
| 개념 | <p>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육/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즉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 방과 후 학교, 과외체육활동, 체육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하는 용어임(교육인적자원부,2007).</p> | <p>기존의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운영되고 있던 학교스포츠클럽을 추가적으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다.</p> |
| 성격 & 편성·운영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는 스포츠→ 하는 스포츠 · 생활체육 · 일반 학생의 자율체육 활성화 · 1학생 1스포츠클럽 · 대교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의거 · 학년별 연간34시간(3학년 68시간) 3년간 총 136시간 운영 · 매 학기 편성 ·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순증 확보 · 68시간 범위 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3학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시간을 체육 정규체육수업으로 바꿀 수 있음. |
| 시작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부터 연구개발 2007년부터 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면 시행 |
| 혼용용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스포츠클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 |
| 비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활동 또는 주말 -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 - 교내리그 및 학교 간 대교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시수만큼(의무) - 교내 활동으로 제한 |

4)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난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상대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보다 관심과 인지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유일하게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중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스포츠클럽보다 규모와 인지도, 행사 면에서 비교가 되다 보니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나마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연구는 중학교 체육교사 담당자보다는 대부분 스포츠강사 입장에서 연구가 되었고, 거시적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문제점보다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태생부터 모호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10월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정책의 하나로, 학교 폭력의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을 목표로 하다 보니 학교폭력과 인성, 체육 주체 자체가 불분명하고, 급하게 시행된 정책이다 보니 오래가지 않을 정책으로 오해받기 좋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제안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정책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난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4.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정책 제언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정책 제언 | |
|-------------------------|---------------------------------|
| 프로그램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재개념화를 통한 용어 제 규정 |
| |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운영지침 마련 |
| | 학교 특성에 따른 운영 방안 마련 |
| 인적 요소 | 스포츠강사의 자격 강화 및 정규화 방안 모색 |
| | 일반 교과 교사들의 인식변화 및 전문성 강화 |
| | 학교 주변 인적 인프라 적극적 활용 |
| 물적 요소 | 현실적 수준에서의 재정 확충 방안 모색 |
| | 합리적 재정 배분 방안 모색 |
| | 적극적 학교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모색 |
| | 학교체육과 지역사회체육 간의 연계 방안 모색 |
|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센터(가칭)’ 신설 |

오재광(2016)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표 5>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활동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 체육교사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고 있어 다른 연구와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 체험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표 5.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문제점과 해결방안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때우기 식’ 수업 - 기능적인 부분만을 강조 - 강사의 전문성 결여 - 체육시설/ 용구 부족 - 강사 채용/ 부정부패 - 정과 체육 스포츠 시간이 중복 - 학생들의 비도덕적인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계획서(=수업준비) - 인지·정의적 영역 강조된 수업 - 스포츠강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 - 체육시설/ 용구 확충 방안 - 투명성 제고 - 학교정규 시간표의 조정 - 평가가 없는 스포츠시간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인식 개선 |

5)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선행연구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2012년 8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중학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와 달리 선행연구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 조사 및 체육교사와의 인식을 다룬 연구(박재혁, 2013; 최나영, 2014; 한동표, 2013), 학교스포츠클럽 모범 사례 연구(김민옥, 2014)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선행연구는 운영의 주체인 체육교사의 연구보다는 스포츠강사의 입장에서 연구가 대부분이고,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체육교사들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 연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김기철, 김택천, 허현미(2013)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연구결과와 제언을 통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정형화된 수업이 아니라 지역적 특색과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하지만,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실시되고 바로 이 연구가 진행되어 단편적이고 초기에 집중된 문제점이 아쉽다.

김민옥(2014)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사례연구’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학생과 지도자의 인식 및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수업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경쟁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인성교육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재광(2016)은 ‘중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기능적인 부분만을 강조한 스포츠수업, 스포츠강사의 전문성 결여, 교과서와 평가가 없는 스포츠 시간을 대하는 학생들의 가벼운 태도, 스포츠강사 채용/면접 시 생겨나는 문제점, 학교의 시설과 용구 부족의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희망하는 종목이 제한성, 중복된 학교 시간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등으로 보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기홍(2017)는 ‘중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수업효과에 대한 학생 만족도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별 전문성에 따른 학생만족도 조사를 통해 중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착근에 기여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2. 자문화기술지의 이해

1) 자문화기술지 개념

자문화기술지는 기존의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연구, 생애사연구와는 달리 자전적(Autobiographical)으로 주관성이 가미된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구성하고,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며, 문화기술지적(Ethnographical) 방법이 차용되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2010). 따라서 자문화기술지는 현장교사에서 교육연구자로 되어 가는 연구 여정에서 저자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변환적인 역할과 관점을 타자와 대상세계에 관련지어 공론화하고자 하는 이 글의 연구목적에 부합한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이동성, 2011).

자문화기술지의 연구대상은 연구자 자신이나 자신과 긴밀하게 관련된 집단 또는 타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자신이나 자신이 포함된 타자들 집단의 사회문화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자문화기술지에서는 스스로의 목소리로(1인칭으로 기술)자기(Self)와 사회, 문화 간의 연계를 관찰하고 성찰의 과정을 겪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2010).

전기, 평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의 문학 장르들은 한 개인의 삶을 기술하고

성찰하는 측면에서 자문화기술지와 구분이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 장르들은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개인적인 삶을 기술하였을지라도, 연구 과정의 엄격성, 자료 분석과 해석의 간주관성, 문화적 의미로의 공유와 전환이라는 질적 연구의 특징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위의 문학 장르들은 한 개인의 삶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지어 체계적이고 확장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 자문화기술지와 유사 질적 연구방법론들의 개념적 차이를 장르, 연구의 대상, 저자의 시점, 주요한 특징 측면에서 종합하면 <표 6>과 같다(김영천, 이동성, 2011).

표 6. 자문화기술지와 기타 질적 연구 분야 비교

| | 분야 | 연구 대상 | 저자 지점 | 주요 특징 |
|------------|----|--------------------------------------------------------------------------------------|--------------------------------------------------------------------------------|------------------------------------------------------------------------------------------|
| 자문화기술지 | 학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자신 · 연구자와 관련된 집단/타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칭 주인공 · 1인칭 관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성찰 · 엄격성 · 반영성 |
| 전통적 문화기술지 | 학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의 문화 · 체계의 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칭 관찰자 · 전지적 작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성 · 엄격성 |
| 생애사 연구 | 학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삶에 대한 학문적인 이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칭 주인공 · 3인칭 주인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주관성 · 엄격성 · 공유/전환 |
| 전기 평전 | 문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역사적인 삶에 대한 일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칭 주인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성 · 문학성 · 성찰성 |
| 자서전 회고록 일기 | 문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역사적인 삶에 대한 내러티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칭주인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성 · 문학상 · 자기성찰 |

2) 자문화기술지 유형

Reed-Danahay(1997)는 자문화기술지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형인 원주민(native ethnography) 혹은 소수자 문화기술지(native ethnography, minority ethnography)는 특정 집단의 내부자가 문화적 자아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서 소수집단의 정체성이나 소수자(minority)와 다수자(majority) 사이의 권력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둘째, 성찰적 문화 기술지(reflective ethnography)는 연구과

정에서 발생한 연구자의 자기반성적인 성찰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셋째, 자(서)전적 문화기술지(autobiographic ethnography)는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시켜 그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세 가지 유형들은 접근방식과 강조점에서 미세한 차이점을 나타내지만, 모든 유형이 개인과 타자 그리고 대상세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김영천, 이동성, 2011).

본 연구자는 ‘나’ 자신의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경험에 대한 내용을 성찰적 문화 기술지(reflective ethnography)로 활용하였다. 성찰적 문화 기술지(reflective ethnography)로 5년 동안의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면서 연구자의 자기반성적인 성찰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Reed-Danahay(1997) 자문화기술지의 유형

| 원주민 혹은 소수자 문화기술지 | 성찰적 문화기술지 | 자전적 문화기술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집단의 내부자가 문화적 자아를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소수집단의 정체성이나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권력 관계를 밝히는데 유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연구자의 자기반성적인 성찰을 강조하는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거시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결시켜 그 의미를 분석하는 유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성 : 모든 유형이 개인과 타자 그리고 대상세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측면 차이점 : 접근 방식과 강조점에서 미세한 차이점 | | |

3) 자문화기술지 글쓰기와 한계

자문화기술지 글쓰기는 학문적인 글쓰기 방식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Ellis(2004)는 문화기술자처럼 사고하고, 소설가처럼 자문화기술지를 쓰라고 추천하였다. 이 말은 자문화기술자의 엄밀한 사고과정과 더불어 유연하고 창의적인 글쓰기 방식을 강조한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의 글쓰기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서 비롯된 연구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자문화기술지 쓰기는 앞의 방식이자, 발견과 분석의 방법이며, 연구주제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도록 촉

진한다(Richardson, 1994). 또한, 자문화기술지 쓰기는 그 자체가 이야기를 재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탐구방법이다. 자문화기술자는 글쓰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가시화되지 않았거나 간과된 삶의 파편들에 주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퍼즐을 맞추는 글쓰기 작업을 통하여 자기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Suominen, 2003).

자문화기술자는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혼합하거나 재구성하여 자신만의 대안적인 글쓰기를 시도하는 구성적이고 해석적인 존재이다(Chang, 2008). 즉, 자문화기술자는 문화기술지적 전통에 무게를 두는 분석적 자문화기술지를 쓸 수도 있고, 자서전으로 대표되는 문학 장르에 비중을 둔 상상적-창조적 글쓰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김영천, 이동성, 2011).

자문화기술지의 핵심적 자료출처인 자아의 활용은 지나치게 자기 관대 적이고 자기 탐닉 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Buzzard, 2003; Coffey, 1999). 문학적인 개인적 내러티브 장르들이 자문화기술지의 한 종류로 인식되는 이유는 자문화기술지의 대한 비판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문화기술지의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Chang, 2008). 첫째, 문화적 분석이나 해석보다는 이야기만을 과하게 강조할 때, 둘째, 문화와 타자로부터 분리된 자아를 과하게 이야기 할 경우, 셋째, 자신의 내러티브에서 윤리적 규정을 무시하고 타자를 이야기 할 때, 넷째, 개인의 기억자료의 자료 출처와 회상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다섯째, 자문화기술지로 불리기 적절치 않을 경우이다(김영천, 이동성, 2011).

4) 체육학에서 자문화기술지

체육학에서 교사 연구자로서의 역할 및 사회화 과정을 다룬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Betoume & Richards, 2015; Richards & Ressler, 2016; Sparkes, 2002; Templin & Richards, 2014; Templin & Schempp, 1989). 예를 들어, Richards & Ressler (2016)는 체육교사교육 전공 교수

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화 과정을 연구를 통해 드러내는 일은 체육교사교육 현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09년도부터 발행된 *Qualitative Research in Sport, Exercise and Health* 저널에서는 체육학 분야에서 연구자의 삶을 드러내는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질적 연구물들이 보고되고 있다 (2017, 홍덕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학자(교수)혹은 교사, 그리고 스포츠강사(지도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 자문화기술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이동성, 2011; 임성철, 2011; 고문수, 2015; 임혜림, 2016; 나주영, 2016; 홍덕기, 2017; 유근재, 2018). 첫 번째 고문수(2015)와 홍덕기(2018)는 대학 초임 체육교수가 겪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과 수업의 본질을 찾기 위한 성찰과정, 체육교육 전공 초임 교수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이다. 특히 홍덕기(2018)는 대학교에 재직하는 체육교육 전공 초임교수인 연구자가 학부과정부터 15년간 경험한 ‘학문’과 ‘교육’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학문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기술하였다. 두 번째는 임혜림(2016) 와 나주영(2016)은 초등체육교사로서 교육적 성장과 그 의미를 담은 연구이다. 특히 한 점은 연구자들이 초등교사로서 체육전공이 아닌 다른 일반 전공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체육업무를 어쩔 수 없이 맡아 체육교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는, 스포츠강사(지도자)로서 유근재(2018)는 특정 종목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성장과정 및 몰입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스포츠강사(지도자)들은 다양한 질적 연구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과 성찰에 관한 반성을 글쓰기를 통해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연구자는 중학교 체육교사로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주도에 소재한 S 여자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2014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년 동안 변화 과정을 자전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문화기술지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저자의 목소리와 자기성찰, 그리고 반영성이 담보된 교사 연구자의 변환적인 역할과 관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체험한 연구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기술, 분석, 해석하는 생애사적 접근이 절실하다(Stremmel, 2002; 김영천, 2005, 2010; 이정선, 2005; Hay & White, 2005; 이희용, 2007; Lassonde, Galman & Kosnik, 2009; Nicholl,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여정에 따른 한 교사 연구자의 변환적인 역할(transformative role)과 관점을 생애사적 접근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자기연구(self-study)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연구자

1)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나는 14년차 중학교 체육교사이고, 제주도 S 여자중학교 건강교육부장으로 5년간 근무하고 있다. S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 학교에 4년을 근무할 수 있으며, 4년이 끝나면 정근을 가야한다. 하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 관리자들이 업무를 계속 원할 때는 초빙교사로 4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관리자들이 나에게 초빙을 제안했을 때, 부담도 사실 있었지만 학교와 집이 근거리에 있다는 장점과 내 업무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매력에 4년을 더 근무하기로 했다. 관리자들이 초빙교사를 원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지난 4년 동안 내가 학교생활을 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초빙교사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초빙교사를 근무하는 4년 동안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도 내신을 쓸 수가 없다.

5년 내내 건강교육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체육업무를 전담으로 기획하였고, 그 외 학교스포츠클럽 업무 등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계원으로 두고 있다. 대부분에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2월에 업무 분장을 하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써서 제출하면, 관리자가 수합하여 교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 업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반복적인 업무라 상대적으로 많이 원하는 업무에 경쟁이 심하다. 특히, 남자 체육교사는 당연히 학생과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과 업무와 건강교육부장을 5년 연속해서 맡는 것은 체육교사로서 보기 드문 일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체육교사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장시간 학교스포츠클럽 개선을 위한 연구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체육교사는 나 말고 K대를 졸업하고 바로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배교사 1명과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에 나와 같이 S여중으로 발령을 받았다. 1년 3개월을 근무하다 군에 입대하였고, 2017년 3월에 복직하여 현재 신규교사 A와 근무하고 있다. 신규교사 A가 군 입대 동안에는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 5년 동안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열정적인 후배와 함께 내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짜고, 모든 체육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로서 최상의 환경일 것이다.

2) 다양한 연수를 통한 체육교육 이해하기

나는 제주도에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대학교는 전북에 있는 W대 체육교육과를 나왔다. 제주도로 체육임용고시를 보고 싶었지만, 제주도에서는 체육교사를 뽑지 않았다. 그래서 졸업 후 경기도로 임용고시를 봤고, 2번째 임용고시 최종에서 떨어지면서 지방으로 눈을 돌렸다. 결국 나는 2003년 충남에서 체육임용고시를 합격하여 2004년 9월 1일자로 공립학교 체육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처음 발령지는 충남 Y군이였다. 남자 중학교에서 1년 근무 중 제주도에 있는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였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생이별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거듭되었다. 3년 6개월을 남자 중학교에서 근무하였고, 여자중학교로 2년 근무 후 인천광역

시로 도간 교류를 하였다. 늘 제주도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그리워 제주도와 도간 교류를 희망했지만, 결국 성사가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도간 교류가 잘되는 인천광역시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인천광역시 간다고 무조건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조그만 희망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인천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 결국 2011년 3월 1일자로 꿈에 그리던 제주도로 발령이 났다.

약 10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단점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사실 외롭기는 했지만, 교사만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나만의 간절함이 초임교사로서 본분을 다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여름, 겨울에 실시하는 전국체육교사모임 연수를 비롯한 하나로 수업 연구회 연수,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 2009체육교육과정 공청회 등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연수와 새로운 수업방식 연수를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였다. 초임시절 수업방식에 목말라 했던 이런 나의 노력은 나를 한층 더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유명 체육교사와 친분을 쌓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유명 체육교사들의 자료와 노하우는 학교에서 체육수업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공개수업과 연구수업을 통해 주변선생님들에게 나만의 다양한 체육수업의 가능성을 보여 주웠다. 이런 덕분에 늘 새로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체육교육의 흐름에 앞장 설 수 있었던 것 같다.

3) 계획서 달인 되기

2011년 제주도로 발령받아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나에 경험들을 적용하고 싶어도 단위 뉴스포츠연구회 등 다양한 체육교과 동아리에 가입하였다. 또한, 내가 평상시 적용하고 있는 하나로 수업연구회를 만들어 창의·인성 교과동아리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신청했다. 나름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초등 교사들에게 밀려 본선도 가지 못했다. 제출할 당시 담당 장학사는 계획서를 보지도 않고, 많은 신청자가 있어 어렵다고 단언했다. 결국, 창의·인성 교과동아리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창의·인성 동아리에 선정된 동아리 교사들만 하는 연수를 알고 담당 장학사에게 부탁하여 연

수를 같이 받았다. 그리고 연수를 통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열심히 연수를 받았다. 몇 개월이 지나 도교육청 같은 부서에서 인성교과 동아리를 선정한다고 공문이 왔다. 나는 더 최선을 다해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담당 장학사에게 계획서를 들고 갔을 때 장학사는 웃으면서 선생님이 계획서를 가지고 꼭 올 줄 알았다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결국 도 단위 인성교과동아리에 선정되었다.

인성교과 동아리에 선정되면 동아리 활동비로 500만원이 지원된다. 나는 500만원 전부 체육교과 워크숍에 쏟았고, 나의 인맥을 총 동원에서 수업을 잘한다는 소문난 체육교사와 체육학 전공교수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 자료집을 만들어 담당 장학사님에게 가져가 자랑했고, 이와 같은 순수한 나의 행동은 다음 동아리 담당 장학사들에게도 전달이 되어 도 단위 인성교과 동아리 하나로 수업연구회는 5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또한 5년 동안 인성교과 동아리 회장으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2018년 인성교육 우수 선진교사로 선정되었고, 인성사례 자료개발 및 전국단위 인성관련 워크숍에 제주도 대표로 참석했다.

2016년 7월 중순에 2015교육과정 체육교과 선도 교원 연수 목적으로 경기도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 연수중에 교장선생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다. 2016년 행복교육박람회 인성실천교육 한마당으로 계획서를 쓰고 싶다는 내용이였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많은 행사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는 행사다. 심지어 행복교육박람회 기간에는 대통령과 교육계 많은 수장들도 참석을 한다. 행복교육박람회 인성실천교육 한마당은 인성이라는 주제로, 일산 킨텍스에서 2박 3일 동안 부스를 운영하며,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 공간을 만들어 홍보하는 박람회다. 사실 2015 교육과정 체육교과 선도 교원 연수 출장이 끝나면 바로 하루 쉬고 청주에서 하나로 수업연구회 하계연수 수업사례발표가 있었다. 교장선생님의 간절한 요청은 결국 저녁 비행기로 제주도로 내려갔다. 저녁 9시에 학교에 도착하여 새벽 3시까지 행복교육박람회 인성실천교육 한마당 계획서를 썼다. 그리고 새벽 비행기로 청주로 가서 하나로 수업연구회 하계연수 수업사례를 발표하였다. 결국 2016 행복교육박람회 인성실천교육

한마당 계획서는 선정되었다. 10월에 2016년 행복교육박람회 인성실천교육 한마당으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박 3일 부스 운영과 체험활동을 하고 교육부장관 기관 학교표창을 받았다.

매해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공개수업 때문에 홍역을 치른다. 다들, 부담스러워서 가장 경력이 적은 교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개수업과 연구수업은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 된 교사가 해야 한다고 나는 늘 주장하였다. 물론, 초임교사들이 수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선배로서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연륜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더 의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한다고 했고, 어차피 공개 할 거면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평소에 시도해보지 못한 수업을 하였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관련 내용과 융합관련 수업을 했다. 결국, 공개수업 지도안은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관련 담당 장학사에게 알려졌고, 자유학기제 유공교원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계획서를 많이 써서 응모했고, 선정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계획서는 늘 보고서가 따라 붙었고, 계속된 글쓰기는 한층 더 꼼꼼하고 세련되면서 여러 응모를 주최하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중요 요소를 알게 되었다. 결국, 계획서와 보고서는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글로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고, 나만의 차별화된 표현이 선정 승패의 결정적 요인 이었다.

4) 평범한 교사에서 전국단위 수업사례 발표 강사로

2004년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고박사이다. 대단한 임용고시 출신이라며 박사라는 칭호를 써 주셨다. 지역적 특성상 교사들의 경합지역이라 대부분 선생님들은 신규교사가 아닌, 경력교사가 많았다. 그래서 신규교사를 보면 신기하고 본인들과 다르다는 시선들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수업내용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2008년 충남 J 여중에서 선배 체육교사 수업과 내 수업을 비교한 적이 있다. 평범한 수업의 연속이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수업을 하면, 꼭 체육부장을 불러 시범

을 보이고, 2열 횡대로 서서 연습하는 수업. 축구수업에서는 항상 드리블과 슈팅을 연습하고 학생들끼리 시합하는 수업.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그리고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어느 날 C교수님이 쓴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유레카를 외쳤다. 나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기능이 다소 떨어져도 많이 알고 실생활로 이어나갈 수 있는 수업,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체육을 하는 것은 체육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C교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그해 2009년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스포츠교육학회가 주최하는 제1회 체육교육한마당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렸고, 그 행사에 참여하면 C교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전국 유명대학 교수님과 현직 체육선생님들의 강연 또한 준비되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책에서 만났던 교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준비한 책에 사인을 받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 또한 받았다. 그리고 현직 체육선생님들의 강연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자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2011년 제주도로 내려와서 다양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혹자들이 이제는 외부강사가 아니라 제주도내에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수업사례발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도 수업사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결국, 2015년 가을 충남대학교에서 체육교육한마당이 열렸고, 나는 여학생체육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사례를 발표하였다. 발표 후 스포츠교육학회장으로부터 수업 사례상도 받았다. 2015년 광주체육교과연구회 발표, 2016년 여성체육학회 수업사례 발표, 2016년 제주도 초등전담교사 연수, 초등스포츠강사연수, 중등스포츠강사 연수 등 다양한 수업사례 발표를 하였다. 2017년 교육과정평가원 추천으로 울산시교육청 2015 교육과정 과정중심평가 사례발표를 하였으며,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여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에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학교현장에 일반화하고 보급하는데 노력했다고 교육부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여

학생 체육활동 부분 학교체육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2. 연구 장소

1) 학교 환경

S 여자중학교는 1960년 5월 3일에 설립하여, 제주도 최초 공립여자중학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중학교이다. 서귀포시 시내 중심에 위치했던 S 여자중학교는 1999년 시내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고, 참되게, 착하게, 아름답게 라는 교훈아래 2010년부터 2013년 4년 연속 도교육청 선정 학력향상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2014년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 우수학교, 2015년 교육부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6년 대한민국행복교육박람회참가 유공기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16년 학교체육 활성화 기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런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시내권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배정을 할 때는 늘 교통편이 편한 J 여자중학교로 선호하고 있다. 설문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S 여자중학교가 조금 더 호감도는 높지만, 결국 불편한 교통편에서 J 여자중학교를 선택한다는 하였다. 1학년 3월 학생들과 교육활동을 할 때는 대부분 J 여자중학교를 떨어져서 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은 회사와 공장이 없어 감귤농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S 여자중학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 학생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활달하고 적극적인 편이라 교육활동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2) 학교 현황

(1) 학생 현황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학년 구성이 다섯 반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8년 1학년부터 약 30명이 줄어들어 한 반이 없어졌다. 2018학년 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클럽 1학년 A반(1, 2반), B반(3, 4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표 8. 2018학년도 S 여자중학교 학생현황

| 학년 \ 반 | 1반 | 2반 | 3반 | 4반 | 5반 | 소계 | 합계 |
|--------|----|----|----|----|----|-----|-----|
| 1학년 | 29 | 30 | 30 | 30 | · | 119 | 420 |
| 2학년 | 32 | 31 | 31 | 31 | 31 | 156 | |
| 3학년 | 28 | 29 | 30 | 29 | 29 | 145 | |

(2) 교과별 교사 현황

표 9. 2018학년도 S 여자중학교 교과별 교사 현황

| 구분 | 도덕 |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 가·가 | 음악 | 미술 | 체육 | 한문 | 영어 | 중국어 | 진로 | 보건 | 영양 | 합계 |
|----|----|----|----|----|----|-----|----|----|----|----|----|-----|----|----|----|----|
| 남자 | 1 | · | · | · | 1 | · | · | · | 2 | · | · | · | · | · | · | 4 |
| 여자 | · | 3 | 3 | 2 | 2 | 2 | 1 | 1 | · | 1 | 3 | 1 | 1 | 1 | 1 | 22 |
| 계 | 1 | 3 | 3 | 3 | 3 | 2 | 1 | 1 | 2 | 1 | 3 | 1 | 1 | 1 | 1 | 27 |

S 여자중학교는 관리자 빼고 교사가 27명 중 남교사는 4명 14%, 남교사 연령 분포도 50대 후반 2명, 40대 초반 1명, 20대 후반 1명으로 구성된다. 5년 동안 남교사 분포가 약 14%정도 유지되었다. 여느 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교사 비율이 훨씬 높고, 의사결정에 있어 여교사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환경

여자중학교에서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여유롭지 못하다. 특히, S 여자중학교는 1학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운영되어 모든 교실을 활용하고 있다. 1학년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와도 장소 문제로 잦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또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남는 교실을 수학교과실과 영어교과실로 전환되었다.

담당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되는 수업일지라도 눈치를 보면서 빌릴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장소는 다양한 종목을 만들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학생을 동시에 수업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역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써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 S 여자중학교는 그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대 도로변 주변에 학교가 위치에 있어서 교통안전에 염려가 있고, 걸어서 30분 이상 가야 지역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골 학교 소규모학교 외에는 전국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장소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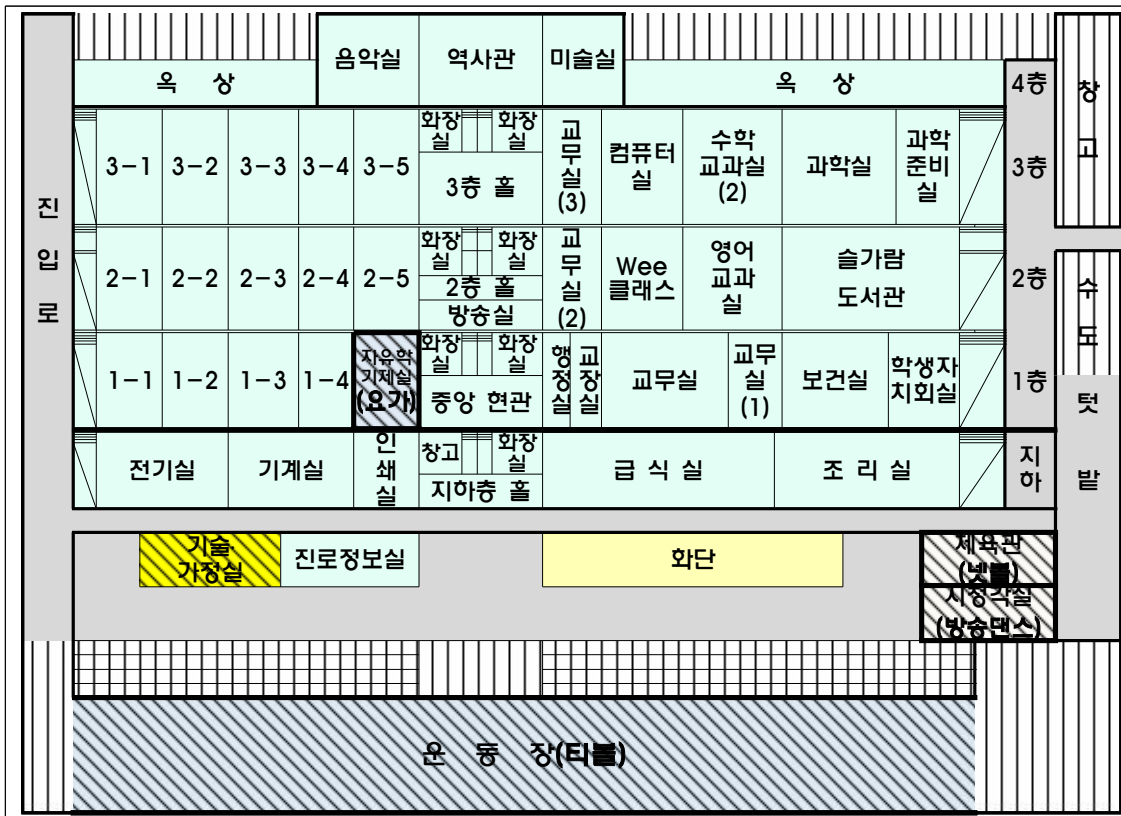


그림 1. 2018학년도 S 여자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환경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5년간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의 기억자료 및 자기 성찰, 문서자료 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는 장소, 상황, 시간 자료출처를 표기하여 색인화 하였다.

1) 연구자의 기억자료 및 자기 성찰

연구자는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의 모습을 자기회상(self-reflection)과 기억 자료를 통해 텍스트로 기록하고, 표현하였다. 자기성찰(self-observation)의 과정을 메모와 현장일기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나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표현하였다.

2) 문서자료 조사

본 연구에서는 s 여자중학교 2014년부터 2018년도 ‘학교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관련 교육청 문서, 스포츠강사의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소감문, 현장 노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에 관한 스포츠강사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한 이유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질문기술이나 진행기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면담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미리 만들어진 면담 가이드에 의하여 진행하였다.

4) 참여관찰

오랜 시간 동안 직접 연구자가 현장에 머물면서 관찰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참여 관찰이라고 한다(김영천, 2007). 본 연구에서는 수업 참여 학생과 스포츠강사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자연스러운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관찰자로서 참여관찰을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언을 통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참여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연구자에 의해 분석 작업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한다(김영천, 1997). 또한, 질적 연구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정보 처리를 자료 분석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는 중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

츠클럽 활동 운영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를 구성하기 위해 5년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서와 연구자의 수업일지, 스포츠강사의 심층 면담 내용, 학생의 심층 면담 내용을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시하고 구조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주제를 몇 개의 하위 목록으로 나누고, 하위 목록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상위 목록으로 범주화하는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시하였다(나주영, 2016).

5. 자료의 진실성

질적 연구방법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은 연구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기준으로 자료의 진실성과 확실성으로 설명된다(Guba, Lincoln, 1994). 또한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연구자 개인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 되지는 않았는지 검토 및 평가를 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 측정법,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간 검토, 반성적 주관성을 채택하였다.

1) 다각도 측정법(Triangulation)

다각도 측정법은 삼각측정법이라고도 하며 질적 연구에서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증거와 자료, 방법을 확보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김영천, 조재식, 허창수, 2006). 다각도 측정법은 연구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오류를 최소화 하여 내재적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억자료 및 자기성찰 자료, 심층면담, 관련자료 수집을 이용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노력하였다.

2) 동료 간 협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전체 과정에 특정 관련된 동료들을 선정하여 조언 및 평가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자의 분석 및 해석에 대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경험이 있는 체육선생님들, 스포츠 클럽 강사, 그리고 스포츠교육학 전공 체육교사 및 스포츠 교육학 전공 교수 간 협의를 통해 자료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오류나 편견 및 왜곡을 최소화 하였다.

3) 반성적 주관성

Bryman(1998)에 따르면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강조되며 그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며 해석 및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 중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선입견을 버리고, 주관적인 사고가 개입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연구 전체의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 구성원 간 검토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일부 교사와 스포츠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물에 관한 해석과 결론에 대해 재확인을 거쳐 타당성을 높이고, 연구 진행과정을 재검토 받았다. 이런 과정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변화

1) 3학년 체육 시간 시수 증가로 첫 발 내딛기

“2014년 3월 처음 학교에 부임하고, 첫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이다. 건강교육부장으로서는 체육관 강당에 3학년 학생 전부 강당에 앉혀 놓고 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고, 부서별 학생들을 나누고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자리다. 약 80%가 체육복을 입지 않았고, 대부분 내 말보다는 친구들과 잡담만 하였다. 큰소리로 집중을 시켰고, 정확하고 멋진 소개로 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처음 건강교육부장을 맡았고, 멋지게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시작하고 싶었다.”

(2014. 03. 교사반성일지)

“교장실에 불러가는 시간이 많았다. 교장선생님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둘러보고 오는 날은 꼭 날을 부른다. 고선생 시스템을 바꿀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밖에 운영할 수 없는 걸까?”

(2014. 06. 교사반성일지)

“특히, 3학년 선생님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다.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3학년 담임선생님들은 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들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듯 나에게 푸념을 했다.”

(2014. 10. 교사반성일지)

스포츠클럽 시간을 마냥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 더 이상 스포츠클럽 시간을 갖는 건 무의미했다. 또한, 3학년 학생들의 행동은 저학년들이 그대로 답습하여 1,2학년 학생들까지 이어질까봐 걱정이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시간에 체육복을 안 입고 제멋대로 하는 행동이 연쇄반응처럼 체육시간에도 이어졌고, 3학년 수업을 담당하는 신규 체육선생님은 상당히 힘들어 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제주도 샘플링 학교로 지정하여 직접 학교로 방문했다.

학생대표 10명과 체육교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1학기 동안 스포츠클럽을 기획하면서 느낀 점과 교장선생님에게 불려가서 들었던 얘기들을 쉽 없이 표출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3학년 스포츠클럽 1시간을 정규체육시간으로 전환하는 거였다. 차라리 체육시간이 늘어나면 책임지고 체육교사들이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후배체육선생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3학년 스포츠클럽 1시간이지만, 반별 1시간은 우리 학교 체육수업 시수가 주당 5시간이 증가하는 거였다. 또한 증가하는 주당 5시간은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계산해 보면 체육교사 1년에 170시간이 늘어나는 거라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다. 그래도 후배 체육선생님은 질 높은 체육수업과 스포츠클럽 정상화에 동의를 해주었다. 학교 측에서도 체육과 결정에 환영 해주었고, 매년 열리는 학교교육과정협의회에서 쉽게 통과 시켜 주었다. 이 결정은 학교 스포츠클럽 정상화에 체육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른 교과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다.

표 10. 교육과정 년도 별 시수 조정표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교육과정 시수 | 1,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 | 1,2,3학년 1시간 (3학년 1시간을 정규체육수업으로 전환) | | | 1,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 |

스포츠클럽 시수 조정은 3년 동안 이어졌다. 당연히 3학년 학생들은 체육시간이 주당 3시간이라고 알고 있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체육교사 수업시수는 교내에서 늘 최고를 기록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냥 봉사시간 5시간은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정상화에 첫 걸음이었다.

“솔직히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보다 체육시간이 더 좋죠. 대부분 다른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걸요.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시간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는 없어요. 체육시간이 늘어나면 그나마 체육 수행평가 연습이라도 하죠. 3학년은 왜 체육시간이 2시간인지 궁금해요.”

3학년 ○○○

2017학년도에 문제가 생겼다. 이 지역에서는 4년이 학교 만기다. 내가 올해 내신을 쓰고, 내년에는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급히, 교장, 교감, 교무부장 회의를 열었고, 결국 2018학년도에는 새로운 체육교사가 온다는 전제하에 3학년 스포츠클럽 시간을 다시 1시간 증가 시키는 시수조정 회의를 열었다.

“선생님이니까 5시간을 아무 이득 없이 한다고 하지. 일반적인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관내에서 제일 잘 된다고 소문도 나고, 저 역시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새로 오시는 체육선생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3년 동안 만들어 온 3학년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1시간을 정규체육시간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우수사례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3학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2시간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한다. 체육수업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체육수업이 정상화 될 때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도 정상화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은 정상화 되려면, 체육수업이 우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8학년도 교육과정조정협의회가 열렸다. 2019학년도를 대비한 협의회였다. 2017학년도에는 내가 학교 근무 만기라, 2018학년도에는 새로운 체육교사가 온다는 전제하에, 3학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를 원래대로 1시간 증가하여 2시간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8학년도부터 내가 초빙교사로 4년 더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를 줄이고 체육시간을 순증 할 수 있다는 안건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많은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우리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너무 잘 운영되고 있어서, 딱히 체육수업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3년 동안 체육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정상화에 노력한 것을 칭찬해주었고, 교무부장은 체육교사들이 그동안 고생한 과정들을 교장선생님과 다른 부장님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칭찬 일색으로 안건을 상정했던 담당자로서 부끄러웠다. 하지만 너

무나 행복했다. 결국, 2019학년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3학년 시수는 현행 2시간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2018학년 올해부터 3학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4년 전에 와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제가 특단에 조치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1시간을 정규체육시간으로 바꿔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4년 더 초빙하게 돼서 이번 안건 상정을 통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1시간을 정규체육시간으로 바꿔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안건 상정

“건강교육부장님, 저는 여태까지 우리학교처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잘 되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들도 열심히 수업을 잘 진행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학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1시간을 체육교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선생님들 지금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연구부장 ○○○

“저도 연구부장님과 동의합니다. 그리고 건강교육부장님이 담임과 강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의견을 부장님이 강사선생님들에게 잘 전달해주시고, 또한 강사선생님들의 의견을 다시 저희들에게 잘 전달해주셔서 오해 없이 너무나 잘 운영 되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만족합니다.

3학년 부장 ○○○

손유민(2014)은 중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1주일에 1시간이지만, 3학년은 2시간을 부여하여 체육수업시수 4·4·4로 맞추고, 3학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1시간을 정과 체육수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한 이유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정과체육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자치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만을 중요하게 바라본다면 수업으로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3학년 체육 수업시간으로 시수 증가는 큰 의미가 있고, 학생과 교사간의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인식을 바꿔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돌렸다면 결국은 체육교사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다. 3학년 체육수업을 통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체육활동으로 그리고 엄연한 수업으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고, 주변에 지켜보는 일반교과 선생님과 교육청 장학사님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9학년도 교육과정협의회에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우리학교는 그 어느 학교보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잘 된다고 칭찬했을 때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2) 과감하게 학년 구성을 반으로 나눠 시스템 조정하기(A반, B반)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에 출석을 부르고 나서 다른 스포츠클럽 친구들을 찾아다녀요. 애들이 많아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선생님들이 확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며 돌아다녀요. 간혹 스포츠강사 선생님에게 돌아다니다가 들키면 보건실 갔다 왔다고 하면 뭐라고 못해요.”

3학년 학생 ○○○

“솔직히,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자로서, 한 학년 약 150명 정도 되는 학생이 전부 나와 수업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웬지. 학년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의 원인을 모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2014년 수업일지

표 11. 년도 별 스포츠클럽 반 학년 구성 조정

| | 2014년 | 2015년, 2016년, 2017년 | 2018년 |
|-----|--------------------------------------------------------------------------------------------------------------------------------------|----------------------------|--------------------------------------------------------------------|
| 시스템 | 한 학년 모두 같은 시간에 실시 (5개 종목 동시에 수업 진행) | 1,2반(A반) 3,4,5반(B반) | 1학년 1,2반(A반) 3,4반(B반) 2,3학년 1,2반(A반) 3,4,5반(B반)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 2017년: 전 학년이 1,2,3,4,5반으로 구성 · 2018학년도: 1학년 학생 수 부족으로 4개 학급으로 구성 | | |

2014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분반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 특정 학년에 상관없이 약 150명이 되는 학생이 교실에서 밖으로 나와 자기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

스프링 반으로 이동하는데 놀라운 광경이었다. 대부분은 체육복을 입지 않았고, 전쟁에서 피난 가듯 어떤 학생들은 담요를 덮어 썼으며, 슬리퍼는 불안하게 반은 벗겨져 있고, 수업종이 울렸는데도 여유롭게 걷는 모습은 교사로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또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분반 학생 수가 많다보니 스포츠클럽강사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전반적인 문제점 중 가장 시급한 건 시스템의 문제였다. 출석만 확인 하면, 다른 스포츠클럽 반으로 친한 친구 만나러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었다.

제주도는 제주시로 인구 쏠림현상으로 서귀포시 지역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서귀포S중학교만 한 학년 당 8개 반으로 구성되었고 대부분 한 학년 당 5개 학급 중규모 정도이다. 그리고 서귀포S중학교 빼고 모든 학교에서 학년 전체가 나와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실시하고 있었다. 대부분 체육교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았다.

서귀포S여중은 학 학년 학급이 짝수가 아니라서 좀 곤란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보고 싶어서 A반(1,2반), B반(3,4,5반)으로 나눠서 실시하였다. 이렇게 나뉘었을 경우, 동아리 수와 강사 수는 줄어들지만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강사 수업시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스포츠강사 선발 할 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스포츠강사로 선발할 수 장점이 있고, 따라서 수업의 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평상시 교육청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체육업무 관련 얘기를 담당 장학사와 체육담당 주무관과 많이 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모범 사례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와 함께 도움을 청했다. 또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1시간을 3학년 체육수업으로 1시간 순증하면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정상화에 노력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피력하자 담당 장학사와 체육 주무관은 어렵지 않게 호응해 주었다.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종목은 2015년에는 3종목 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4종목

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3종목에서 4종목으로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또한 다른 학교보다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A반은 평균 12명 학생과 수업을 하는 것이다. 소수 정예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수업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

<표 12>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지원비

(단위: 원)

| 서귀포 동 지역 학교 | 한 학년 평균 규모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서귀포 J여중 | 6학급 | 17,340,000 | 30,600,000 | 24,480,000 | 24,480,000 | 24,480,000 |
| 서귀포 S여중 | 5학급 | 21,420,000 | 18,360,000 | 24,480,000 | 24,480,000 | 32,640,000 |
| S남자중학교 | 8학급 | 40,800,000 | 32,640,000 | 24,480,000 | 32,640,000 | 32,640,000 |
| N남자중학교 | 4학급 | 12,240,000 | 12,240,000 | 12,240,000 | 12,240,000 | 12,240,000 |
| 서귀포 D중학교 | 6학급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19,200,000 | 20,400,000 |

· 서귀포 S여중 2015 ~ 2017학년도 기간에는 학교스포츠클럽 3학년 1시간을 체육으로 전환하였음

· 한 학년 평균 규모는 2014 ~ 2018학년도 한 학년 평균 규모임

“A(1,2)반은 학생들이 B(3,4,5)반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라 부러워서 체육샘에게 여쭙 봤어요. 담당 체육샘이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체육샘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서 체육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

“사실 처음에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했어요. 하지만, 종목 수가 줄어들었지만 강사 수업시수는 오히려 늘어났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생 수는 줄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장선생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요가 스포츠클럽 강사 ○○○

학년 구성을 반으로 나눠 시스템 조정하기의 핵심은 참여 인원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한은택(2015)은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이 즐겁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참여 인원수가 너무 많은 이유를 들었다. 그것은 가르치는 수업자도 마찬가지다. 적은 수로 보다 많은 신체 활동의 기회를 주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자의 마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년 구성을 반으로

나누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한 학년이 5개 반이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2반을 A반, 3,4,5반을 B반으로 나누고 처음에는 3명의 강사에서 4명으로 강사선생님을 늘렸다. 결국, 2018학년도에는 한 반에 평균 스포츠클럽 학생 수가 13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소수 정예 학생은 강사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5년의 과정 속에 당연히 서귀포S여중은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강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3)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종목 선정하기

표 13. 년도 별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종목 조정

| | 2014년 | 2015년 | 2016년·2017년 | 2018년 |
|----|-------------------------------|-------------------|--------------------------|------------------------|
| | | 변화1 | 변화2 | 변화3 |
| 종목 | 축구 탁구 요가 트래킹 배드민턴 | 요가 뉴스포츠 줄넘기 | 요가 넛볼 방송댄스 플로어볼 | 요가 넛볼 방송댄스 티볼 |
| | 전 학년 5종목 | A, B반 3개 종목 | A, B반 4개 종목 | A, B반 4개 종목 |

· 뉴 스포츠반은 강사선생님이 다양한 종목을 가르쳐보고 싶다고 해서 1학기는 넛볼, 2학기는 플로어볼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지 이다. 개정된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14)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의 희망과 의견에 따라 종목 선정과 운영을 안내하고 있지만, 다양한 현실적 제한점에 의하여 교육과정의 지침을 준수하기 힘들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목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문지로 조사하면 현실성과 동떨어진 종목 스키, 스케이트 등 상상할 수 없는 종

목들이 나왔다. 학생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이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 강사를 채용하는데, 가령 우리가 원하는 종목의 강사를 구하려고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다면 스포츠클럽 담당자로서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2015년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방송댄스 강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급하게 다른 스포츠강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어쩔 수 없이 음악줄넘기 종목으로 추가 공고를 내고, 음악줄넘기 스포츠강사를 선정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많은 친구들이 선정하는 특정 종목에 집중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적정 인원수를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인원수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에 선택된 학생들은 1년 동안 시간 배우기식 수업으로 일관하고, 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들은 힘든 수업의 연속이다. 또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한 반에 30명 이상이면 아무리 뛰어난 강사라 할지라도 수업의 질이 좋을 수 없다.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 성향중 하나는 운동장이 아닌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 종목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동장보다는 실내 종목을 많이 개설했다. 또한, 2014년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대회에서 넷볼 종목으로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자 많은 학생들이 넷볼을 좋아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넷볼과 플로어볼을 나눠서 진행했고, 2018학년도에는 플로어볼보다 티볼을 원하는 학생이 많아 과감히 티볼 종목을 선정하게 되었다.

한은택(2015)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문제점을 학생들이 원하는 클럽(종목)에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은 매년 다르고,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불만을 가진 학생은 생긴다. 모든 학생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종목은 현실적이지 않다.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특정 종목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을 최대한 배려하되 학교 현장과 상황에 맞는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소 부정적인 종목을 선택했다더라도,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수업 통해 그 종목의 가치를 이해하고, 꾸준히 즐길 수 있다면 최고의 종목이 아닐까?

4) 활동 장소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부장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부장 선생님이 없을 때는 늘 혼자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에게 부탁했는데, 부장선생님이 여기에 오신 후로는 장소 걱정 안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기 일처럼 고민하고 걱정해주셔서 결과적으로 간혹 장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학교에서도 스포츠클럽 강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더욱 비교 할 수밖에 없죠. 다른 학교는 담당 선생님들이 관심을 안 갖거든요.”

요가 스포츠강사○○○

(1) 매해마다 활동 장소 정하기는 큰 스트레스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을 정상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중 하나는 장소 문제다. 특히,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시간에 비가 온다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 2014년 비가 오자 요가 종목 빼고는 120명 정도가 체육관으로 모이게 되었다. 당연히 정상적인 수업은 안 되고, 학생 안전에도 위험한 상황이 계속 되었다. 하필, 교장선생님은 이럴 때 체육관으로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스포츠클럽 책임자인 나를 교장실로 불렀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은 이해하지만, 그 속에서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교장선생님은 더욱 불편해 하셨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임시방편으로 시청각실에서 영상이나 영화를 보여주곤 했다. 점점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시간이 노는 시간으로 체육시간 그 이후까지 영향을 끼쳤다. 요가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가정실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 기술·가정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실습수업을 많이 안했고, 또한, 기간제 선생님이 많아서 그런지 장소 협조가 수월했다. 가끔, 실습을 한다고 하면, 급하게 교실을 찾아다니며, 빈 공간을 찾아 헤매곤 했지만, 담당자인 나도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 요가 강사선생님 입장에선 고마웠던 것 같다.

2018학년도에 새로운 기술·가정선생님이 2명이나 부임하셨다. 오자마자, 기술·가정실에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요가 시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실습도 많아졌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하루 전날 매주 허락을 받는데, 주변 선배선생님들이 내가 안타까웠는지 나를 도와 한마디씩 거들었다. “실습이 없다면, 당연히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실습실 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4년 동안 썼던 기술·가정실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행히 1학년 학생수 부족으로 여유 있었던 교실 하나를 요가반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체육관에서 뉴스포츠반과 줄넘기 반이 진행되었는데, 체육관 중간에 칸막이 만들어 반을 구분해서 수업을 했지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A(1,2반)반은 가능했지만 B(3,4,5)반은 상대적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한 학기씩 바뀌 가면서 수업을 했고, 자기가 원하는 반이 아닌 경우에는 장소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론했다. 불만을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2016년, 2017년까지 이어가다 결국 장소 문제로 스포츠강사 선생님과 학생들이 언쟁을 벌렸다. 언쟁 속에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언어와 행동이 나오면서 감정싸움으로 확대되었다. 학생들이 교장실에 직접 가서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생겼다. 강사선생님이 학생들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장소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한 나의 문제였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안내와 1학기가 끝나면 바로 장소를 바꿔서 진행한다는 공식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 같다. 결국, 플로어볼 종목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2018년도에는 플로어볼 종목을 없애고 티볼 종목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티볼 종목은 운동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가 오면 학년 반을 정해줘서 다양한 이론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론 수업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표 14. 년도 별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장소 현황

| 2014년 | | 변화 1 | | 변화 2 | | 변화 3 | |
|-------|----------|-------|-----------|--------------|------|-------|-----------|
| | | 2015년 | | 2016년· 2017년 | | 2018년 | |
| 종목 | 장소 | 종목 | 장소 | 종목 | 장소 | 종목 | 장소 |
| 요가 | 기가실 | 요가 | 기가실 | 요가 | 기·가실 | 요가 | 1학년 자유학기실 |
| 탁구 | 체육관 | | | 넛볼 | 체육관 | 넛볼 | 체육관 |
| 축구 | 운동장 | 뉴스포츠 | 체육관 및 운동장 | 방송댄스 | 시청각실 | 방송댄스 | 시청각실 |
| 트래킹 | 외부 및 운동장 | | | 플로어볼 | 운동장 | 티볼 | 운동장 |
| 베드민턴 | 체육관 | 줄넘기 | 체육관 | | | | |

“티볼은 당연히 운동장에서 하는게 맞아요. 하지만, 여름에는 정말 더워요.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하고 할 때 조금 난감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장마철에 계속 비가 오면, 더 짜증나죠. 교실을 선정해 줘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교실 수업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티볼 강사선생님 ○○○

시청각실은 2016년부터 방송댄스반이 전담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각실은 무대가 있고, 약 150명 정도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있다. 전신 거울이 없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적당한 음향 그리고 방송시설은 중학교 여학생들이 방송댄스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다른 학교 방송댄스반은 교실에서 강사선생님이 준비한 음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동식 앰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하기 번거롭고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런 면에서 시청각실은 방송댄스 강사선생님이나 학생들 모두 만족도가 높다.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다른 종목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장소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방송댄스를 시청각실에서 해요. 심지어 시청각실은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른 강사선생님들이 부러워 하지만,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면 다른 반 강사선생님들에게 같이 수업 하자고 제안도 합니다. 오랫동안 시청각실에서 스포츠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송댄스 스포츠클럽 강사 ○○○

주병하(2014)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체육시설의 투자와 활동 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주변 지역시설을 연계한 방안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S여중 여건상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지역 체육 시설과는 거리도 멀고 교통이 불편하였다. 오히려, 오재광(2016)의 연구에서 기능적인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스포츠수업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대안으로 교실 수업을 통한 다양한 인성수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인성자료를 강사선생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강사선생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사료된다.

(2) 체육 시간과 겹치면 내가 양보하기

3월이 되기 전에 일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2월부터 학교로 나와서 전체 시간표를 작성하게 된다. 언제부터가 나는 일과 담당선생님과 스포츠클럽 장소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리고 2월 말부터 일과 담당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최대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과 체육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전혀 겹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학교에는 체육교사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배 체육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체육시간과 겹칠 것을 예상하여 매번 부탁을 한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우선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는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결국 3월 달에는 모든 강사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었다. 체육수업과 안 겹치도록 최선을 다해 시간표를 짰지만, 부득이하게 체육수업을 겹칠 때는 체육선생님들이 모두 양보하도록 하였다. 오로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보다 효과가 훨씬 좋았던 것 같다. 다른 학교 스포츠강사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서귀포S여중과 비교하면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을 먼저 배려하는 곳은 여기 밖에 없다고 좋아하였다. 문제는 배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체육수업 종목 선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수업이 겹칠 때

는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실내 수업을 위하여 미리 완벽한 준비는 기본으로 갖추 수밖에 없다.

오재광(2016)에 의하면 중학교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학교 정규 시간표의 조정을 지적하였다. 하루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과 정규체육수업이 연속으로 하는 경우 학생들이 피곤함을 느껴, 다른 교과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귀포 S 여중인 경우 간혹 그런 반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체육시간과 겹치는 경우이고, 무엇보다 체육교사들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본다.

2.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인적요소 변화

1)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정상화의 꽃은 강사선생님

표 15. 년도 별 종목 및 강사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종목 및 강사 | 요가(박★우) | 요가(박★우) | 요가(박★우) | 요가(박★우) | 요가(박★우) |
| | 축구(강○♂) | | 네티볼(정◎♂) | 네티볼(정◎♂) | 네티볼(정◎♂) |
| | 탁구(이○♂) | 뉴스포츠(정◎♂) | | | |
| | 트래킹(강○우) | 줄넘기(김○우) | | | |
| | 배드민턴(김○♂) | | 플로어볼(김○♂) | 플로어볼(변○♂) | 티볼(김○우) |

- 경력 ★: 5년차, ◎: 4년차, △: 2년차, ○: 1년차
- 성별 ♂: 남성, ♀: 여성

(1) 강사 선발

서귀포S여중에서 처음으로 2015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를 2015년 2월에 공개 채용하였다. 5개 종목에서 3종목으로 대폭 조정했고, 종목도 변화를 주었다. 2014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경험한 교장선생님은 전반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지시했다.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원하는 종목을 받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종목이 대부분이었고, 어쩔 수 없이 학교 사정과 맞으면서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을 채택하였다. 또한 모든 중학교에서 동시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일찍 공고를 내서, 많은 강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채용 심사는 체육소위원회 학부모와 교감선생님, 그리고 체육담당자인 연구자가 심사요원이었지만, 2014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상황을 설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빠졌다. 심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졌고, 면접 문제는 미리 연구자가 만들어 체육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체육소위원회 학부모님 위원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 본인들에 의해 강사를 채용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더욱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에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다. 요가, 뉴 스포츠, 방송 댄스 종목을 뽑는데, 요가는 1명, 뉴 스포츠는 3명, 방송 댄스는 0명이 지원했다. 방송 댄스는 추가 공고를 냈지만 결국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결국 종목을 방송 댄스에서 줄넘기로 변경하여 마무리 하였다.

분명 강사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강사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2016년부터는 지원했던 강사들이 기존에 했던 학교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새로운 강사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아 부족한 강사 선생님을 채우기가 급급했다. 특히, 서귀포시 관내인 경우에는 스포츠강사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 2월 달에 강사를 뽑는 게 아니라 모시고 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중 대충 수업해도 당연히 내년에도 어느 학교든 새롭게 강사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정상화하는데 큰 장애물이다. 또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선생님들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매년 큰 사고 없이 적당히 지났으면 하고, 새로운 방식과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2) 여자 스포츠강사와 남자 스포츠강사

단순히 수치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중생들은 남자 스포츠강사를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추가하면 젊고, 잘생긴 남자 스포츠강사 하지만, 5년에 과정을 통해 보면 점점 여성 스포츠강사가 강세임을 알 수 있고, 성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2016년 20대 아주 젊고, 잘생긴 플로어볼 스포츠강사 선생님이 있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외형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플로어볼 정목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종목보다 선생님을 보고 선택했던 학생들이 종목에 대한 불만으로 잦은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은 2017년도 넷볼 종목에 강사선생님이 채용시를 포기했다.

표 16. 년도 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성별 현황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남 | 3 | 1 | 3 | 2 | 1 |
| 여 | 2 | 2 | 1 | 2 | 3 |
| 합계 | 5 | 3 | 4 | 4 | 4 |

“플로어볼 스포츠 강사선생님이 너무 잘생겨서 플로어볼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재미도 없고, 그래서 2학기에는 다른 종목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도 짜증났고, 그 다음부터는 플로어볼 자체가 싫어졌어요.”

플로어볼 동아리 학생 ○○○

분명 뛰어난 외모와 젊음은 선택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강사선생님의 수업능력으로 재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뛰어난 외모와 젊음이 전부 는 아니었다. 플로어볼 강사 선생님은 하키 선수출신으로 기능 또한 뛰어났지만 학생들 수준에 맞는 수업 스킬이 다소 부족했다.

(3) 교사 자격증

2014년 2명이 정교사 2급 체육교사 자격증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채용과정에서 1명이 재 응시를 했지만 탈락했다. 2014년부터 수업 관찰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교사 자격증이 없는 스포츠강사 선생님과 크게 차이점을 볼 수 없었다.

2017년 플로어볼 강사를 뽑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내는 선배에게 부탁을 했다. 교사 자격증도 있었고, 수업에 대한 열의도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나를 통해 수업에 대한 피드백으로 자신의 수업을 반성도 하였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강한 교육신념은 굽힐 줄 모르는 일관성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유연하게 진행해 오던 학생들의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생겼다. 잦은 트러블은 학생들을 오히려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2017년 후반기에는 학생들이 무리를 만들어 교장실에 찾아가 스포츠강사 선생님을 바꿔 달라는 일까지 생겼다. 교장선생님은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강사와 학생을 불러 조정을 했다. 교장선생님 또한 학생들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고 무리한 요구임을 알고 있지만, 여럿차례 교장실로 찾아와 선생님의 작은 실수를 강조하며, 새로운 스포츠강사 선생님을 요구하자 결국 교장선생님도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당장 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다른 스포츠강사 선생님으로 교체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분명 적응기는 누구나 있다.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면 그 전에 선생님에 적응된 학생으로서 불편함은 다소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 바꿀 수도 없다. 교육자로서 교육전문성을 믿고 마지막까지 기다려 줄 때 결국은 좋은 수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스포츠강사 선생님은 2018학년도에는 교사 자격증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기간제로 채용되었다.

표 17. 년도 별 교사 자격증 현황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남 | 2 | 0 | 0 | 0 | 0 |
| 여 | 0 | 0 | 0 | 1 | 0 |
| 합계 | 2 | 0 | 0 | 1 | 0 |

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2012)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교사 자격증 소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심지어,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스포츠강사로 우선 위촉하였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학교스포츠클럽 심사표 예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와 수업 잘하는 것은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그렇다고 명확하게 이 만큼 차이 난다고 수치화 할 수도 없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으로 채용 당락을 결정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년의 운영사례를 보면, 사실은 교사자격증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채용 서류심사에서는 아직도 정교사 2급 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유리하다. 대부분 교육청에서 제시해 준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스포츠강사 서류 심사표의 예시는 <표 17>과 같다. 그리고 종목을 우선 선정하여 스포츠강사를 뽑을 수도 있지만, 스포츠강사를 먼저 뽑고 종목을 선정하는 학교도 있다. 그럴 경우 능력이 있지만 자격증 여부에 따라 채용 당락이 결정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위학교에 맞는 심사표로 만들어 사용해야 하겠다.

표 18. 중학교 스포츠강사 서류 심사표

| 중학교 스포츠강사 서류 심사표 | | | | |
|----------------------------------------------------------------------------------------------------------------------|------------------------------|--------------|----|--|
| 접수번호: | | | | |
| 평가구분 | 평가항목 | 배점 및 평가기준 | 득점 | |
| 자격 평가 | 정교사자격증 | 40 | | |
| | 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등 | 35 | | |
| | 경기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등 | 30 | | |
| | 경기단체 지도자 자격, 체육계열학과 재학 및 졸업생 | 25 | | |
| | 학교체육소위 승인자 | 20 | | |
| 능력평가 | 학교체육 지도경력 | 2년이상 | 30 | |
| | | 1년이상 2년미만 | 20 | |
| | | 1년미만 | 10 | |
| | 자기소개 | 상 | 30 | |
| | | 중 | 20 | |
| | | 하 | 10 | |
| 점 수 합 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심사표 예시를 바탕으로 학교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기준 마련 · 학교 여건에 따라 배점 조정 가능 | | | | |

(4) 2018년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선생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오랫동안 이어져서 실시하는 강사선생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요가 종목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요가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도 없고, 40대 후반으로 적지 않은 나이이다. 종목 특성상, 실내 종목으로 2017년까지 기술·가정실에서 독점하여 사용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2018년도에는 결국 자유학기제 교실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수업을 관찰해보면 다른 종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자기만의 전문성을 학생이든 교사들에게 어필한다. 요가라는 종목도 있지만, 무용과 방송댄스 심지어 레크리에이션 자격증까지 다양한 종목을 섭렵하고 있으

며 자기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은 타이 추종을 불허한다. 건강에 대한 상식과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미용까지 다양한 부분을 요가라는 종목으로 표출하고, 학생들에게 어필하면서 진지하고 자기만의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가 선생님의 강한 수업 장악력은 모든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누구든 따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학생들에게 요가 수업은 건강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잠재적인 압력으로 학생들에게 어필하여 가장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요가 종목은 1회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선택하고, 한 번 선택하면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요가 종목을 보면서 요새 가장 중요시 여기는 1인 1종목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요가 선생님은 정말 무서워요. 일단 수업시간에 떠들면 단체로 체력훈련을 시켜요. 근데, 체력훈련은 근력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에요. 늘 수업시간 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지, 또는 살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줘요. 그래서 나도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요가 선생님은 다른 곳에서도 많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지 수업진행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요가 동아리 학생 ○○○

두 번째 종목은 넷볼 종목이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교사 자격증은 없고, 30대 남자선생님으로 수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또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열심히 넷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넷볼 한 종목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이 계발한 게임을 선보이기도 한다. 체육교사와 스포츠강사들 사이에서 수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넷볼 종목을 좋아 하게끔 만들고 있으며, 서귀포여중 넷볼 동아리선수들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노하우인 것 같다.

“일단 넷볼 시간은 신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줘서 기분이 업 되요. 수업이 끝나면 기분 좋게 교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좋아하는 피구 종목도 시켜주고, 피구 할 때는 빅 볼을 이용해서 더 재미있어요. 내년에도 신청하고 싶어요.”

넷볼 동아리 학생 ○○○

서귀포여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당연히 방송 댄스이다. 일단, 장소가 시청각실에서 실시하다 보니 의자가 있어서 편하고, 음향 상태가 양호해서 최적의 상태에서 수업이 가능하다. 강사선생님은 20대 젊은 선생님이로 방송 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눈높이가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학생들이 많이 구성될 때는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지만, 적은 학생수로 넓은 공간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40대 남자 선생님이 방송 댄스 수업을 했지만, 아침 1교실 수업에서 잦은 지각과 교내 흡연 문제로 교체하게 되었다.

“방송 댄스 강사선생님 진짜로 춤을 잘 춰요. 그래서 가끔 제가 추는 것 보다 선생님 춤을 구경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1학기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처럼 무대에서 평가를 하면 그렇게 짜릿할 수 없어요. 저는 무대에서 춤을 추는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학교 스포츠강사 선생님 너무 좋고, 사랑해요.”

방송댄스 동아리 학생 ○○○

2018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종목은 티볼이다. 2017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로 플로어볼에서 티볼로 종목을 바꿨다. 강사를 구하기 위해서 2월 달 초부터 알아보기 시작했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 2018학년도에도 다른 학교보다 서귀포여중이 더 좋은 환경이지만, 스포츠클럽 강사 원서 신청은 없었다. 다행히 모든 종목 1명씩 지원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고 마무리 하였다. 티볼은 운동장에서 실시해야 하고, 워낙 여학생들이 운동장 수업을 싫어해서 젊은 여자강사 선생님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선생님을 잘 따르고 열심히 참여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 수업 중에 티볼을 배운 적이 있어서 동아리를 만들어 대회

에 참여하고 싶다고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그냥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끼리 티볼 연습을 하였고, 강사선생님도 수업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지도까지 해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여자 선생님인데 진짜 멋져요. 얼굴도 상당히 이쁘고, 수업도 잘해요. 작년 플로어볼 보다 훨씬 재밌어요. 작년에도 그냥 플로어볼 하지 말고, 티볼 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어떤 때는 선생님이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티볼 좋아요. 저번에는 타격 연습할 때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한 번에 바로 홈런을 쳤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티볼 동아리 학생 ○○○

2) 학생 평가권으로 강사선생님을 चु추게 하기

“학생들이 3월에 수업을 시작할 때 마다 물어봐요. 스포츠클럽이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본다고 해서 수업을 시작했더니, 중간 중간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고 안 해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수업 중에 시험이 없으니 대충하자고 하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시험은 없지만, 체육선생님에게 얘기해서 체육시간에 적용할 거라고 거짓말을 한적 있어요.”

요가 스포츠클럽 강사선생님 ○○○

“당연히 다르죠. 시험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거, 우리 서귀포○여중 학생들은요 시험이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해요. 나름 성적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안보면 복장도 잘 안 챙기는데, 태도 점수 깎는다고 하면 빌려서라도 올 걸요.”

2학년 학생 ○○○

2015년 2학기부터 평가권에 대해서 고민했다. 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모든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이 평가권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다가도 결국 평가를 하지 않으니 수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예체능 교과 평가를 없앤다고 했을 때 예체능 선생님들이 거리에 나가 반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모든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쉽게 접근했다. 그냥 평가계획서에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평가를

올리고,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통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전국에 있는 체육선생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의견들이 분분했다. 나처럼 쉽게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수업이라는 틀에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다른 영역을 집어넣고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두 번째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기로 했다.

요새 트렌드는 1인 1기이다. 학교 밖이나 교육청에서는 1인 1기라는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 체육시간에 1인 1기라는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설정하여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체육교사와 함께 평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설득력 있었다. 그래서 체육수행평가 100점 만점에 1인 1기 종목을 10%로 설정하고, 5% 기능영역, 5% 정의적 영역으로 하였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으면, 정의적 영역에서 감정을 하고, 학생으로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선생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감정하는 부분을 관철시켰다. 기능영역 5%는 나름 자기 종목에 맞는 기능을 상중하로 나누어 학기말에 실시하였다. 사실 기능영역 상 5점, 중 4점, 하 3점 최대한 간격을 좁히고, 기능영역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 작은 시도지만 결과는 상당히 컸다.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수업에 집중했고, 평가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시험에 응했다. 또한, 시험결과에 만족하며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도 엄연히 수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통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만족했다.

최나영(2014)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에서 학교체육수업에서의 평가를 부담스러워 하고, 평가가 없는 학교스포츠클럽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엄연한 학생들의 인식이며 현실과는 괴리감이 컸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또한 엄연한 수업이라는 인식 속에 부담 없는 평가는 음식에 양념과도 같다.

표 19. 2018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평가 계획서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평가 유무 | 무 | 무 | 유 | 유 | 유 |

평가 계획서

| 영역 | 종류 | 등급 | 평가척도 | 배점 |
|-------------------------------------------------|----------------------------------------------------------------------------------------------------------------------------------------|----------------------------------------------------------------------------------------------------------------------------------------|-----------------------------------------------------------------------------------------------------------------------------------------------------------------------|----|
| 1인 1기 【경쟁활동】 【표현활동】 중 선택 1 (10점) | 【경쟁활동】 넛볼 및 티볼 | 평가방법 | 넛볼 및 티볼은 개인 기능을 통하여 실시한다. | |
| | | 평가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스 또는 송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슛 또는 타격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팀 대결에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
| | | A | 위의 평가요소 중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 5 |
| | | B | 위의 평가요소 중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4 |
| | | C | 위의 평가요소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3 |
| | | D | 위의 평가요소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2 |
| | | E | 미 응시 | 1 |
| | 정의적 영역 (5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적 영역(열정 & 배려) - 학습 활동 시 전 수업과정을 통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가 관찰된 것을 누가 기록하여 평가 | | |
| | 【표현활동】 요가 및 방송댄스 | 평가방법 | 요가 및 방송댄스는 개인 기능과 팀 표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
| | | 평가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 팀과 어울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배려를 통하여 팀의 동작이 일치한다. | |
| | | A | 위의 평가요소 중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 5 |
| | | B | 위의 평가요소 중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4 |
| | | C | 위의 평가요소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3 |
| | | D | 위의 평가요소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2 |
| E | | 미 응시 | 1 | |
| 정의적 영역 (5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적 영역(열정 & 배려) - 학습 활동 시 전 수업과정을 통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가 관찰된 것을 누가 기록하여 평가 | | | |

3) 내가 인정하면 너도 인정해주는 스포츠강사 전문성 인정하기

(1) 학생보다 못한 선생님들

“선생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요가 수업하고 있는데, K선생님이 오셔서 ○○수업해야 하니까 너희들 밖에서 수업하라고 나가라고 했어요. 저에게 이렇다 할 사정 얘기도 안하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과 저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가 스포츠클럽 강사선생님 ○○○

사실 K선생님은 내년에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였다. 그래서 나이도 많았고, 내가 이 사건을 크게 만들어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요가 스포츠클럽 강사선생님에게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말한 뒤 K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좋게 처리했다. 분명히 K선생님이 잘못하였다. 결국 내가 교사로서 요가 스포츠강사 선생님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제발 방지를 위해 교무회의 시간에 꼭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선생님, 이런 스포츠강사는 짤라야 해요! 어디 학생에게 잘못했다고 앓았다 일어 섰다를 300회 시킬 수 있어요. 이 강사선생님 폭력 선생님 아닌가요?”

3학년 담임 선생님 ○○○

학생 얘기만 듣고, 어느 담임 선생님은 전화기를 부여잡고 흥분하며 말했다. 아무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함부로 누군가를 잘라야 한다며 흥분하는 것은 교사로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선배교사들은 늘 강조했었다. 3월 학생들과 첫 대면 식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년이 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 일종의 기 싸움 이라고 교사들은 얘기한다. 당연히,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에도 학생들과 기 싸움은 통과 의례이기도 하다. 특히, 경력이 짧은 강사선생님 일수록 그 부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끔은 생각보다 강하게 지도할 수도 있고, 때론 약하게 지도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가르치는 교사로서 전문성이며 지켜줘야 할 부분일 것이다.

2018학년도 3월 첫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은 조금 일찍 와서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수업이 시작된다. 이때 교장선생님은 늘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꼭 얘기 좀 해달라고 하셨다. 여러 가지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내가 대표해서 건의를 하였다.

“교장선생님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엄연히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도 수업입니다. 간혹, S 선생님은 수업 중에 들어와서 인사도 없이 학생들에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고 나가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교장선생님이 직접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연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뿐만 아니라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꼭 연수 부탁드립니다.”

교장선생님도 동감하시면서 꼭 연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과 내가 사석해서 말씀 드려도 되지만, 강사선생님들 앞에서 얘기해야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자리를 나오면서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했다.

(2)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들과 레포 형성하기

2018년도 3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첫 시간, 나는 강사선생님들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식거리를 준비하였다. 커피를 내리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빵들 그리고 수업과 앞으로 계획들을 얘기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런 얘기 속에서 새로운 강사선생님들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짐을 했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이 있는 날에는 내가 간식을 매일 준비하고 강사선생님과 쉬는 시간을 통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다고. 교사로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체육수업 철학들을 공유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방향성을 같이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재미어요. 수업도 재미있고, 체육선생님과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정말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단순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가 아니라 체육선배로서 진로도 얘기해요. 저보고, 수업 너무 잘하니까 교직이수해서 체육교사가 되면 더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노력해서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요.”

티볼 스포츠강사선생님 ○○○

“저는 일단 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학교 예산으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물품 구입에도 적극적이고, 그래서 더 여기 학교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체육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요가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응용해서 하고 있고요, 학생들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좋아요.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마사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숙제로 부모님들에게 마사지 해드렸던 사례를 발표하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가 스포츠강사선생님 ○○○

요가 스포츠강사 선생님은 사실 무용수 단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끔 공연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이 겹치기도 하고, 때론 서울에서도 공연이 생기면 요가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마다, 2주 전부터 나에게 알리고 대체강사 선생님을 준비하였다. 아무래도 대체강사는 학생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다른 스포츠강사 선생님과 내가 더 신경을 써서 지켜보고 도와주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요가 스포츠강사 선생님은 미안해 하지만 또한, 서로 믿음이 있기에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스포츠강사 선생님들도 끈끈한 가족애처럼 내 일처럼 대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는 학교보다 교사와 스포츠강사 선생님과 관계, 그리고 스포츠강사 선생님들 간의 관계 또한 좋은 것 같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2012년 2월 정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2012년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였다. 횡수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연구는 대부분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및 학교스포츠클럽 모범사례 등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체육교사의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학교현장에서 1년 단위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편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변화할 수 있는 연구 주제 또한 아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담당자로서 건강교육부장으로 운영했던 5년 동안의 경험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분석하고 성찰하여,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실천적 지식을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된다. 자문화기술지는 5년 동안의 경험을 연구자 혹은 스포츠강사선생님, 학생들 간의 긴밀하게 연결된 주관적 경험을 깊게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의 기억자료 및 자기 성찰, 문서자료 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는 장소, 상황, 시간 자료 출처를 표기하여 색인화 하여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변화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인적요소 변화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변화에서 첫째, 3학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1시간을 3학년 체육시간으로 시수를 조정했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마냥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3년 동안 3학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1시간으로 활동하였고,

2018학년부터는 2시간으로 다시 조정하였다. 체육수업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체육수업이 정상화 될 때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도 정상화 되는 것이다. 3년 동안 체육교사는 늘 수업시수가 최고였다. 하지만, 체육교사들의 노력은 타 교과에서도 인정을 하고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정상화 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배려할 수 있는 최소의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과감하게 학년 구성을 반으로 나눠서 시스템을 조정하였다. 한 학년 전체가 활동을 하면서 잦은 사건 사고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적은 학생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였다. 한 학년 5학급을 1, 2반을 A반으로, 3, 4, 5반을 B반으로 나눴다. B반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을 수 있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였고,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도움이 필요했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종목을 늘릴 수 있는 강사비를 더 지원해주었다. 2018학년도에는 스포츠강사 1인당 학생수 13명으로 줄일 수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선정하기다.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목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에게 100%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동안 5년 동안 학생들은 원하는 종목은 매년 다르고,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불만을 가진 학생은 생겼다.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특정한 종목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을 최대한 배려하되 학교 현장과 상황에 맞는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목 선정하기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으로 최고 보다 최선을 다하는 선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다소 부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그 종목의 가치를 이해하고, 꾸준히 즐길 수 있게 한다면 그 또한 가치로운 일이다.

네 번째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활동 장소이다. 그래서 매해마다 활동 장소 정하기는 교사의 큰 스

트레스이며,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교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정기 인사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 5년 동안 모범이 되는 종목을 보면,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 실내에서 활동 하는 종목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종목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부분도 고정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였다. 또한, 체육시간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장소가 겹쳤을 때에는 무조건 체육시간이 양보하는 것으로 정했고, 시간표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런 부분을 전교사가 인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들도 교감하면서 더욱 더 자기 수업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인적요소 변화를 보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정상화의 꼭은 역시 강사선생님이다.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강사 선발은 큰 의미가 없었다. 지역에 스포츠클럽 강사들이 한정되어 경쟁을 통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교사의 인맥을 통해서 알아보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자 중학교에서는 남자 스포츠강사 보다는 여자 스포츠강사를 더 좋아하고, 강사의 역량에 따라 선호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도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현재, 2018학년도 S여중 강사선생님들은 자기만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같다.

두 번째, 학생 평가권으로 강사선생님들을 춤추게 하다. 학생들이 느끼는 평가권이 있고 없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체육점수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사선생님들의 재치 있는 과제 또한 잘 수행하였으며, 종목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학생 평가권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엄연한 수업이라는 자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의 전문성 인정하기다. 5년의 연구 과정을 보면, 학생보다 못한 선생님들도 계셨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선생님들과의 중재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상화에 중요한 몫이기도 하였다. 내가 인정하면 너도 인정해주는 관계가 스포츠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터놓고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5년의 연구 과정을 정리해보면 결국, 체육교사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결정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매년 똑같이 해 오던 방식으로 진행하고,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틀림없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정상화 될 수 없다. 스포츠강사선생님들과 체육교사는 결국 한배를 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교사로서 감당하고 배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금 당장 체육교사로서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의 처우를 논하기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정상화 되고, 많은 교육적 효과를 보여준다면 스포츠강사선생님들의 정규직화도 분명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한 중학교 교사가 5년 동안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정상화를 목표로 진행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학교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지역 학교, 학교 규모가 다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서 공식적인 평가가 없다는 것은 수업에 대한 동기유발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 공식적인 평가 근거를 만들어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정착화 되고, 계속 이어다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차원에서 전국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범 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함으로써 많은 체육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강현희, 최덕목(2017). 축구클럽 운영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3), 17-34.
- 고문수(2017). 골프 동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여가학연구**, 15(3), 21-42.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1월).
- 교육과학기술부(2012a). **20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2b). **20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3).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4월).
- 교육인적자원부(2007).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7월).
- 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201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2-11.
- 김경아, 임성철(2016). 체육교육에서 바라본 교사의 진학지도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홀리스틱교육연구**, 20(1), 99-115.
- 김민욱(2014).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사례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김선희, 허영미(2008).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1), 347-364
- 김영천(1997).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학 연구**, 35(5), 135-170.
- 김영천, 조재식, 허창수(2006). 교육학, 교육과정 연구에서 질적 연구자가 고려해야 하는 타당도 이슈들: 그 다양한 접근들의 이해. **교육과정연구**, 24(1), 61-95.
- 김영천, 이동성(201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19(4), 1-27.

김현우, 이기봉, 김충곤(2014).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참여만족 및 교육적 효과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19(2), 31-45

나주영(2016). 초등 여교사의 체육수업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인천.

남기홍(2017). 중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충북

류태호(2000).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3), 725-739.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55-79

박재혁(2013).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손유민(2014).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정책에 대한 교육비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오대균(2014).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운영 개선을 위한 중학교 우수사례 질적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오재광(2016). 중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이동성(2011). 한 교사 연구자의 변환적인 역할과 관점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4(2), 61-90

임성철, 이승범(2012).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경험 분석. 홀리스틱교육연구, 16(1), 41-62.

전두일(2014). 중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현실에 대한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정하영(2014). 여자중학교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가 학습태도와 학업 스트

- 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정하은, 정종설(2012). 청소년 학교 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4(1), 195-212.
- 조용환(2012).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주병하, 주성택(2014). 창의적 체험활동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및 만족도, **한국체육과학회지**, 23(1), 913-925.
- 최나영(2014). **학교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최수석(2009).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중학교 체육교사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최종보(2017). **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
- 한동표(2013).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한은택(2015). **창의적 체험활동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에 대한 중학생과 지도교사의 인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홍덕기(2017). 나의 삶과 교육, 그리고 학문: 재미한인 체육교육 전공 초임 교수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체육학회지**, 56(2), 225-241
- 황향희(2016).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외부 스포츠강사의 직무불안정성과 직무만족, 직무몰입 및 이직의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2), 169-184
- Betourne, J.A., & Richards, K. A. R. (2015). Using autobiographical essays to encourage student reflection on socialization experienc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86(2), 34-40.
- Bryman A. (1998). *Quality and quantity in social research*. London: Macmillan.
- Buzzard, J. (2003). On auto-ethnographic autohority. *The Yale Journal of*

- Criticism, 19(1), 61-91.
- Chang, H. (2008). *Autoethnography as method*.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 Creswell, W. J. (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London: Sage, Inc.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10). *질적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Duncan, M. (2004). *Autoethnography: Critical appreciation of an emerging ar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 Ellis, C. (2004). *The ethnographic I: A methodological novel about autoethnography*.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Guba, E. & Lincoln, Y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Denzin & Y.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 Jones, S. H. (2005). *Autoethnography: Making the personal political*. Denzin, N. K. & Lincoln, Y. s.(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763-791). Thousand Oaks, CA: Sage.
- Reed-Danahay, D. (Ed). (1997).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the social*. New York: Berg.
- Richards, K. A. R., & Levesque-Bristol, C. (2016). Role conflict in the academy: A faculty development perspective. *The Journal of Faculty Development*, 30(1), 7-14.
- Wall, S. (2006). *An autoethnography on learning about autoethnography*.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Abstract>

**Experience in running school sports club activities in
curriculum :**

For five years of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a school sports club
Autoethnography

Koh, Seung Pil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Hyoung Ran

In 2012, the whole country suffered from school violence.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was soon changed to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education, and it was variously practiced as a personality education policy through physical activity. In July 2012, the 'School Sports Club in Curriculum Activities' was fully implemented so that it could be operated compulsively within the regular curriculum of the middle school. Sudden enforcement led to various problems at the school site, and it was hard to find a case where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a continuous basis because the work assignments were determined every year on the school site. Therefore, this researcher analyzes and reflects the experience of the five years (2014 ~ 2018) which was operated as a school

sports club activity officer in the curriculum through the self-culture technical paper, so that the school sports club in the curriculum can settle well It is used as basic data. In order to express the data obtained through trial and error for 5 years as it is, we used the Autoethnography

Data collection of this study took about 5 years from March 2014 to October 2018.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researchers' memorabilia, self - reflection, document research, in - depth interviews,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the collected data were indexed by indicating place, situation, and time data source. In addition, we analyzed the data through inductive category analysis, minimized the subjectivity of the researcher, and increased the authenticity of the data through multi-angle measurement, peer-to-peer consultation, inter-member review, and reflective subjectivity to ensure reliability and validity.

As a result of the change in the school sports club program in the curriculum, the first step was to increase the number of hours of physical education time in the third grade, and drastically adjusted the system by dividing the grade structure in half. We selected the items with the best effort, specified the activity place precisely, and tuned in advance so that the physical education time and place do not overlap. However, in case of overlapping, the school sports club in the course was unconditionally assigned.

In the curriculum, the lecturer teacher was given top priority due to the change of the human element of the school sports club. The instructor was selected fairly and the competence of the lecturer teachers was confirmed by comparing the qualification of the teacher with the teacher of the sports lecturer. I set up the environment to give lecturers teachers the most favorable student evaluation rights, and above all, I focused more on the formation of the lectures with teachers and teachers.

There were many factors that could be decided depending on how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looked at the school sports club in the curriculum and how they tried. If you go to the same way every year and think that you will take care of it because there is a school sports club instructor in the curriculum, the

school sports club in the curriculum can not be normalized. Sports instructors an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re on their way to the same goal. In order to do that, there were many things that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hould take care of. It is still difficult to discuss the treatment of sports instructors a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right now. However, if the school sports club in the curriculum is normalized and shows a lot of educational effects, it seems that the regularization of the sports lecturer teachers is also possible

Lastly,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literature on the operation of school sports clubs in different local schools and curriculums of other schools because it is analyzed as research subjects. In addition, we should make a formal evaluation basis so that the school sports club in the curriculum is also recognized as a serious and important class. Finally, we should share best practices on the operation of school sports clubs in national curricula.